

대전 나노팹 용지 산업용지로 분양

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의 나노팹집적화 용지 3만3000㎡(1만평)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.

대전시는 2006년 말 대덕테크노밸리 대기업 용지 분양시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수도권 기업의 대전지역 이전이 잇따르면서 산업용지난이 빚어지고 있지만 나노팹 관련사업은 당장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반기업 공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대전시는 3월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로 및 공장부지 등을 구분한 뒤 4월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.

집적화용지를 산업단지로 분양하면 분양가격이 2006년 대덕테크노밸리가 웅진에너지에게 분양한 평당 7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7/03/20>